이혼가정 아동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의 기능적 특성과 교사가 지각하는 아동의 내면화 행동문제

민미희(서울대 박사과정) · 이순형(서울대 교수) · 이옥경(서울대 강사)

본 연구는 이혼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의 기능적 특성과 교사가 지각하는 아동의 내면화 행동문제(우울, 불안/위축)가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이혼 가정 아동의 내면화 행동문제가 아동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의 기능적 특성에 따라 영향을 받는 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서울 및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이혼 가정의 만 5세 아동 31명, 3학년 아동 30명, 6학년 아동 30명과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사회적 지지의 기능적 특성은 정서적지지, 평가적지지, 정보적지지, 물질적지지의 4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하위영역은 3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아동에게 각 문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적도록 하였다. 사회적 지지의 기능적 특성은 각 하위영역마다 아동이 응답한 사람의 수로 측정하였다. 내면화 행동문제는 K-CBCL의 우울, 위축/불안으로, 담임교사가 각 아동에 대해 위축 9문항, 우울/불안 14문항에 응답하였다. 통계분석은 일원변량분석, Scheffe검증,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지지의 기능 중 정서적 지지와 물질적 지지에서 학년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 6학년 아동이 만 5세 아동과 3학년 아동보다 정서적 지지를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받는 것으로 지각하였고, 6학년 아동이 3학년 아동보다 물질적 지지를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받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정보적 지지와 평가적 지지에 대해서는 학년간에 차이가 없었다. 둘째, 아동의 내면화 행동문제 중 위축의 경우에 학년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3학년 아동이 만 5세 아동과 6학년 아동보다 더 높은 수준의 위축을 보였다. 아동의 내면화 행동문제 중 우울/불안의 경우에 학년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3학년 아동이 6학년 아동보다 더 높은 수준의 우울/불안을 보였다. 셋째, 이혼가정 아동의 위축과 우울/불안의 내면화 행동문제를 예측하는데 유의미하게 기여하는 사회적 지지의 기능적 특성은 정서적 지지이다.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사람의 수는 아동의 위축을 4.9%설명해주고, 아동의 우울/불안은 6%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사람의 수가 적다고 지각하는 아동이 위축, 우울/불안의 내면화 행동문제를 더 많은 겪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혼가정 아동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와 내면화 행동문제가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고, 사회적 기지의 기능적 특성 중에서 정서적 지지가 이혼가정 아동의 내면화 문제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위축, 우울/불안 등의 내면화문제를 겪고 있는 이혼 가정 아동 중재 프로그램에 있어서 아동의 학년에 따라 그 접근방법이 달라야 하며, 사회적 지지의 기능 중 특히 정서적 지지를 강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하겠다.